

#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이야기’컬렉션의 의미연구\*

## A Study on the Meaning of Story Collection in Popular Song Archives

진 현 주 (Hyun Joo Jin)\*\*

임 진 희 (Jin Hee Yim)\*\*\*

### 목 차

1. 머리말	3.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이야기’컬렉션 수집 사례
1.1 연구 배경 및 목적	3.1 ‘이야기’ 수집 대상 선별
1.2 연구 방법 및 범위	3.2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이야기’컬렉션 수집 결과
1.3 선행연구	3.3 ‘이야기’컬렉션의 가능성
2.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 아카이빙의 필요성	4. 맺음말
2.1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사례분석	
2.2 대중가요와 대중의 삶 사이의 연관관계	
2.3 ‘이야기’아카이빙의 필요성	

### <초 록>

대중가요는 오랜 시간 시대의 희노애락을 함께하였다. 또한 시대의 흐름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의미를 가지게 되기도 한다. 대중가요는 당대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어떤 가수가 있었으며, 어떤 노래가 있었는지,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한 기록을 어떻게 아카이빙할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는 그 노래가 유행하던 시대의 사회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중가요와 그 당대의 사회상을 함께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이야기’컬렉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야기 안에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 노래가 유행하던 당대의 사회의 모습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대중가요사를 넘어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를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

주제어: 대중가요 아카이브, 이야기 컬렉션, 일상 아카이브, 대중의 삶, 사회상

### <ABSTRACT>

For a long time, popular songs have been our source of happiness. They go along with the flow of the generation, allowing them to acquire a significant meaning. Popular songs thus reflect the contemporary society. However, in the study of popular song archives, there has been an interest only in the information of the songs sung by a singer, the type of songs, and the type of singers. Thus, existing popular song archives were not able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of the generation when the songs were popular. Therefore, this paper searched for ways by which to archive not only popular songs but also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during the time when these songs were famous, and suggested a story collection through the methods. These stories reflect the lives of the people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ciety during the periods when the songs were popular. Furthermore, these stories go beyond popular songs, making it possible for us to look dimensionally on the society we are affiliated in.

Keywords: Popular song archive, story collection, archives of everyday life, public life, social conditions

\* 본 연구는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aaa0003@nate.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인간과기억아카이브’ 아키비스트 (yimjhkr@mju.ac.kr) (교신저자)

■ 접수일: 2016년 7월 25일 ■ 최초심사일: 2016년 8월 8일 ■ 게재확정일: 2016년 8월 22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3), 69-97, 2016. <http://dx.doi.org/10.14404/JKSARM.2016.16.3.069>

## 1. 머리말

###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인간은 까마득한 옛날부터 음악을 하고 노래를 부르며 살아왔다. 인간에게 ‘호모 ○○’이라고 여러 가지 혁명을 붙이는데, 현생 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사유하는 인간)’이면서 동시에 ‘호모 무지쿠스(음악적 인간)’라고 보기도 한다(김철웅, 2015, p. 11). 인간은 그만큼 음악과 가까운 존재다. 일상생활에서 음악을 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텔레비전을 키면 음악 프로그램에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광고,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에서도 배경음악을 들려준다. 상점들은 쉬지 않고 음악을 틀어놓는다. 가끔은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도 한다. 이처럼 음악은 접하려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 것은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모습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1일 평균 음악 감상 시간은 ‘66.2분’이라는 통계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우리는 즐거울 땐 신나는 노래를 듣고 부르며 흥을 돋우기도 하고 슬플 땐 슬픈 노래에 감정이입해 울기도 한다. 힘들 때 노래로 위로를 받기도 한다. 오랜 시간 대중가요는 시대의 희노애락을 함께 하였다. 또한 대중가요는 시대의 흐름을 함께하며 그 안에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된다. 대표적인 민중가요로 분류되는 노래 『아침이슬』을 부른 가수 양희은은 이 노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문 앞에서 대형을 이뤄 ‘아침이슬’을 부를 때는 소름이 끼치면서 저건 내가 부른 노래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이 노래의 사회성 같은 것? 내가 부른 노래가 나를 떠나서 날아갈 때는 많은 사람들이 되불러주는 이들의 몫으로써 그들이 어떤 현장에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노래의 느낌이 이렇게 다르구나... 하는 거죠.”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으로 시작되는 노래는 정치적 연관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독재시절이던 1975년 금지곡이 되었다(두산백과). 이후 구전 등을 통해 대학생과 지식인 사이에서 널리 애창되는 대표적인 민중가요가 되었고, 시위 현장에서도 많이 불려졌다. 박정희 정권 말기인 197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사람 많은 곳에서 『아침이슬』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시위로 간주될 정도였다. 이 노래는, 창작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수용자들에 의해 가사 속 그 ‘시련’과 ‘나 이제 가노라’의 선언이 민중화운동의 그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되었고, 창작자 김민기는 이 노래만으로도 오랫동안 합법적 활동이 불가능한 불운한 인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이 노래가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는 어떤 기록으로 존재할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충분히 담고 있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는 어떠한 앨범이 발매가 되었는지, 어느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와 같은 사실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또한 희귀 앨범, 희귀 자료 등을 모으기에만 급급했다. 물론 이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대중가요는 대중이 들어줌으로

써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 대중가요에서 대중의 소비는 중요한 한 부분이며 대중이 대중가요를 소비하는 것은 한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그 시대의 사회상과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몇 해 전부터 국내 대중가요의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이어져왔으나 그 내용이 아카이브의 컬렉션이나 운영 방안에 대한 연구들에 국한되어 왔다. 이에 이 시점에서 노래나 가수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노래를 소비하는 사회의 모습까지 아카이빙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대중가요의 사회적 이야기의 부재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으로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이야기 컬렉션을 추가함으로써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를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중가요를 만드는 과정 또는 대중들이 노래를 소비하는 과정은 모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사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로 대중가요 자체에도 또는 대중가요를 소비하는 행위에도 그 시대의 사회상이 반영되면 그 안에서 발생하는 이야기 또한 그 시대의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사회 속에서 그 노래가 어떤 의미를 가졌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노래가 유행하던 그 당시의 시대상을 다시 돌아보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

의 사례 분석을 통하여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다루어져야 할 컬렉션들을 정의하고 나아가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이야기'컬렉션을 추가함으로써의 그 의미와 필요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대중가요아카이브에서의 대중가요는 국내 대중가요로 한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중가요와 노래에 대한 대중의 공감을 기반으로 발생하는 이야기 수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중이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많은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국내 대중가요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중가요란 널리 대중이 즐겨 부르는 노래를 말한다. 대중가요의 정확한 정의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지만 대체로 근대 시기부터 서민 대중들이 행유하던 노래로 상업성을 띄는 음악이라는 점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다루고자 하는 국내 대중가요란 국내 이용자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대중가요로 '근대 이후 한국 사람들이 생산하고 소비하며, 대중매체를 통해 향유하는 음악'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장유정, 서병기, 2015, p. 45). 음악의 세부 장르로는 발라드, 아이돌/댄스, 랩/힙합, OST, 트로트, 알앤비, 록/헤비메탈, 인디, 일렉트로닉, 재즈, 기타 등이 있다(음악산업백서, 2014).

먼저 대중가요와 대중의 삶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그 연관관계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이야기'아카이빙의 필요성을 밝힌다. 다음으로 이미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재하는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들을 수집한 후 그 이야기들이 어떠한 형태이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그를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컬렉션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 1.3 선행연구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는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 대중가요 전체를 아우르는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와 특정 대중음악가의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 가수 또는 작곡가, 작사가 등 대중음악에 종사하는 인물의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가 있다.

먼저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는 조정임과 주혜성이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조정임(2010)은 기록관리학회에서 처음으로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로 대중음악 아카이브가 가지는 특성과 이를 반영하고 법적주체와 운영형태를 고려하여 기관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중음악 기록관에서 필요한 기능을 살펴보고 기록관, 도서관, 박물관의 기능을 통합한 라키비움(Larchiveum) 형태의 대중가요 아카이브를 제시하였다.

주혜성(2013)은 K-pop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을 수집, 분류, 서비스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수집 측면에서는 K-pop 아카이브의 수집 범위와 수집대상은 K-pop과 K-pop 자료로 국한하며, 원활한 자료 수집을 위해서 음악자료 제출제도가 법령에서 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 분류 측면에서는 K-pop 아카이브 분류에서는 기존의 분류 형태뿐만 아니라 새로운 분류 형태가 필요하며 그러한 분류 형태로 음반 유형별 분류, 앨범 스타일별 분류, 콘텐치 유형별 분류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측면에서는 K-pop 아카이브에서는 항상 최신 정보만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아카이브의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을 제

시하였다.

다음 대중음악가 아카이브에 대한 연구로는 전호순과 이형수가 대중가수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대중가수에서 나아가 대중음악가를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전호순(2012)은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은 기존의 대중가수 웹사이트를 활용하고 흩어져 있는 기록 공유를 위해 허브(Hub)를 바탕으로 하는 모형을 제시하였으며 원자료 관리시설을 구축하여 기증, 위탁, 대여, 구입 등으로 인해 새로 수집된 기록을 관리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의 운영 중 수집, 분류를 중심으로 운영방안을 연구하였다.

이형수(2012)는 여러 주체가 각기 다른 대중음악가를 아카이빙해간다면, 그 결과물이 모여 대중음악 아카이빙이 될 수 있다고 보고 대중음악가를 아카이빙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이때 대중음악가란 '대중을 대상으로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부르는 사람'을 말한다. 대중음악가 아카이빙의 목적과 방향을 제시하고, 산발적 수집이 아닌 의미있는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하여 진행할 아카이빙 모델을 설계하는 것, 이를 통하여 대중 음악 아카이빙의 공간을 채워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대중가요가 시대의 사회성을 담고 있음에는 공통적으로 공감을 하며 대중가요 아카이브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나 가수, 앨범, 노래에 대한 정보와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운영방안에만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또는 대중가요에 얽힌 그 시대적 모습을 담기

에는 한계가 있다.

이야기에 대한 연구로는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개인과 조직의 참여라는 관점에서 모색하는 연구로 이용자나 공동체 구성원의 이야기와 내러티브의 수집은 맥락 있는 기록의 수집과 재현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장소에 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기록을 올리거나 남길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이 제공된다면 진행형 기억을 수집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정 주제나 이야기가 있는 수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국기록학회 학술심포지엄 자료에 따르면 공주대 부설 참여문화연구소는 공주지역의 '이야기가게' 프로젝트를 통해 공주읍내 산성시장에 '이야기를 사는 가게'를 설립한 뒤 장터를 드나드는 지역 주민, 특히 토박이나 노인이나 아주머니들의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지역성(혹은 역사성)이나 서사성(활용성)이 풍부한, 역사 문화이야기, 시장이야기, 생활이야기 등을 수집한 뒤 수집된 기록을 문화 예술적으로 가영가여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자 하였다. 이야기 가게의 설립 계획서에 따르면 수집된 이야기들은 5일장 공연 및 전시, 테마시장 만들기 및 테마거리 조성, 시장 투어 및 답사용 역사문화지도 제작, 지역 축제용 문화콘텐츠(공연, 전시) 개발, 단편 영화 및 다큐멘테이션 제작, 지역 향토사 교재 및 향토지 편찬, 문화 관광 상품 개발, 문화예술 작품 창작 사업 등을 통해 활용됨으로써 지역주민에게 되돌려 주는 활동으로 전개하고자 하며 이 프로젝트는 현재 진행중이다.

## 2.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 아카이빙의 필요성

이 장에서는 기존의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중가요가 대중의 삶에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대중가요와 대중의 연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대중의 이야기를 아카이빙 해야 하는 필요성을 살펴본다.

### 2.1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사례분석

본 논문에서는 국내 사례로는 서태지 아카이브와 조용필 디지털 박물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우디 거스리 센터, 비틀즈 아카이브, 로큰롤 명예의 전당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아카이브를 수집 대상, 컬렉션 범위, 이야기 유/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표 1>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수집 대상은 크게 해당 가수에 대한 기록물만을 수집하는지 가수의 주변인물(가족, 친구, 동료 등)에 대한 기록물까지 수집 대상으로 하는 지로 나뉜다. 서태지 아카이브와 조용필 디지털 박물관은 가수 본인에 대한 기록물만을 수집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우디 거스리 센터와 비틀즈 아카이브는 가수와 가수의 주변인물(가족, 친구, 동료 등)의 기록물을 함께 아카이빙 하고 있다. 이러한 주변인물에 대한 기록물 수집은 해당 가수와 주변인물의 관계를 통해 가수를 더욱 이해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여진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은 가수 개인 아카이브인 앞의 사례들과 다르게 로큰롤 음악 장

〈표 1〉 국내·외 대중가요 아카이브 비교

	아카이브	수집 대상	컬렉션 범위	이야기 유/무
국내사례	서태지 아카이브 ( <a href="http://www.seotaiji-archive.com/">http://www.seotaiji-archive.com/</a> )	가수	가수의 음악활동	유
	조용필 디지털 박물관 ( <a href="http://www.choyongpil.net/info/">http://www.choyongpil.net/info/</a> )	가수	가수의 음악활동	무
해외사례	우디 거스리 센터 ( <a href="http://woodyguthriecenter.org">http://woodyguthriecenter.org</a> )	가수, 주변인물	가수의 생애 전반	유
	비틀즈 아카이브 ( <a href="http://www.beatlesarchive.net/">http://www.beatlesarchive.net/</a> )	가수, 주변인물	가수활동	무
	로큰롤 명예의 전당 ( <a href="http://library.rockhall.com/home">http://library.rockhall.com/home</a> )	중보자 중 로큰롤 음악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대상	로큰롤 음악 활동	무

르에 대한 아카이브로 그 규모에 차이가 있고 수집 대상이 방대하므로 가수 개개인에 대한 깊이 있는 아카이빙을 하는 것에 무리가 있으며 무의미하다.

컬렉션 범위는 가수의 음악활동에 대한 기록물만을 아카이빙하는 것과 가수의 생애 전반에 대한 기록물을 아카이빙 하는 것으로 나뉜다. 서태지 아카이브, 조용필 디지털 박물관, 비틀즈 아카이브는 가수의 음악적인 활동에 대한 기록물만을 아카이빙하고 있으며 가수의 음반, 공연이나 미디어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이미지, 영상 등의 컬렉션을 포함한다. 우디 거스리 센터는 가수의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애 전반에서 발생한 기록물을 모두 아카이빙한다. 그러한 컬렉션에는 우디 거스리가 가족이나 친구들과 주고받은 편지와 엽서 등이나 개인적인 메모를 포함하며 그 외 군사 기록이나 병원 기록 또한 포함된다. 이러한 기록물은 그의 생애를 이해함으로써 그의 음악세계를 이해하고자함이다. 로큰롤 명예의 전당은 로큰롤 음악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록물을 대상으로 가수의 음악적 활동뿐만 아니라 로큰롤 음악 산업

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록물이나 음반사, 매니지먼트사 등의 조직과 관련된 기록물 또한 아카이빙하고 있다.

이야기 컬렉션을 아카이빙하고 있는 아카이브는 서태지 아카이브와 우디 거스리 센터이다. 서태지 아카이브는 에피소드 게시판을 통해 팬들이 서태지와 관련하여 겪었던 추억이나 소중한 이야기들을 수집하고 있으며 미디어 기록물 중 서태지가 직접 매체에 출연하지 않았으나 서태지에 대해 언급한 내용들 또한 수집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서태지가 당대 어떠한 평가를 받았는지, 현재는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우디 거스리 센터는 Joe Klein이 우디 거스리의 생애를 조사하기 위해 우디거스리의 지인 약 100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하나의 컬렉션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구술 기록은 이야기 컬렉션과는 형태가 조금 다르지만 우디 거스리의 생애와 그 시대를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쓰일 수 있다. 서태지 아카이브와 우디 거스리 센터의 이야기 컬렉션이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수집 주체의 차이가 있다. 서태지 아카이브

는 아카이브 운영진뿐만 아니라 팬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기록물 수집에 참여 가능하도록 하고있지만 우디 거스리 센터는 주된 주체는 운영자이며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을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로써 제공해주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 2.2 대중가요와 대중의 삶 사이의 연관관계

쇼펜하우어가 “모든 예술은 음악의 상태를 동경한다.”라고 말했듯이 노래는 인간의 삶 깊숙이 배어 있다. 인간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리고 저항할 때도 노래를 부른다. 따라서 노래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미지 그리고 정서를 공유한다. 또한 대중성과 상업성을 중심으로 한 대중가요는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을 담아낸다. 특히 대중가요는 그것이 만들어지고 불리 지던 시절의 사회적 문제나 이슈를 노래 가사로 다시 재탄생시켜 대중의 의식과 흐름을 바꾸어 놓거나 때로는 주도해 나가기도 하였다(박범중, 2015, p. 169). 그러한 근거로 두 가지가 있다. 첫째, 가요의 작사가들은 그 당시 대중의 경험이나 욕망, 사고방식과 정서 등을 가사에 담아내기 때문에 가사는 시대상을 반영한다. 둘째, 생산뿐만 아니라 대중가요의 소비도 사회와 별개로 일어나지 않는다. 소비는 개인의 즉흥적 욕구에 의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소비란 집단적인 행동이며, 문화나 제도, 그리고 규범적 요소를 포함한다. 우리가 향유하는 대중문화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상징이 만들어낸 사회적 산물이다(김용학, 2015, p. 147).

60년대에는 실항의 아픔 때문에 고향이 언급

된 가사들이 많았지만, 80년대 이후 이런 가사는 자취를 감추었다. 또한 사랑이라는 소재는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다지 빈번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80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했다. 2000년대에 들어올수록 대중가요 담긴 정서는 사랑일변도로 단순화됨에 따라 70년대 자주 등장하던 도시와 시골, 만남과 이별, 희망과 추억, 기쁨과 슬픔의 정서 등이 거의 사라진다(김용학, 2015, p. 150).

대중가요는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나 빈부의 차를 넘어 남녀 간의 사랑, 우정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 등 대중들의 삶을 노래했다. 대중가요는 부르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가슴을 울리게도 하고, 웃게도 한다. 그리고 분노하게도 하고, 코끝이 찡하게도 만든다. 이처럼 대중가요는 우리의 삶과 모습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고 가사를 통해 현실을 이야기 하였다. 특히 대중가요는 현대인들이 가까이에서 두고 함께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아픔과 외로움, 고통, 슬픔 그리고 기쁨 등을 담고 있다. 그리고 대중들에게서 사라졌던 웃음을 되찾고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는 희망을, 황폐해진 인간에게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해준다. 이처럼 대중가요는 대중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고 세상을 변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으며 한 시대와 한 세대에 머물지 않고 시대와 인물을 뛰어넘어 함께 공유하며 즐기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박범중, 2015, p. 171). 이러한 대중가요는 단순히 대중가요로써만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다. 다양한 매체에서 소재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한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 2.2.1 주크박스 뮤지컬

주크박스 뮤지컬이란 대중에게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인기곡을 뮤지컬 스코어로 활용한 무대용이나 영화용 뮤지컬을 말한다. 뮤지컬에 이용되는 노래들은 극적 구조에 맞게 맥락화된다. 이러한 뮤지컬 형태는 대중음악이라는 의미의 팝송(pop-song, popular song)을 무대의 소재로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팝 뮤지컬(pop musical)이라고도 불린다.

주크박스 뮤지컬에서 대중음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작품의 모티브를 제공하는 기능으로 작품의 제목으로 활용되거나 작품의 배경 및 정서적 분위기로 표현된다. 둘째, 극의 전달요소의 기능으로 대중가요의 노래 가사가 뮤지컬 넘버의 대사로 바뀌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어느 장면에서의 배경음악이나 전환음악으로 사용되며 전달요소의 기능을 한다. 셋째, 관객층 확보에 효과적인 마케팅 기능을 하며 관객과 공감대 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주크박스 뮤지컬에서 대중음악의 사용은 관객으로 하여금 뮤지컬에 사용된 음악과 그 시대를 실제로 즐기고 보냈던 세대가 무대로의 변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게 하고, 다시 한 번 음악을 즐기고 그때를 추억하기 위한 좋은 요소로 관람욕구를 자극시킨다(박수연, 2013, p. 49).

이러한 주크박스 뮤지컬이 한국에서 본격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한 것은 2004년 뮤지컬 〈맘미아!〉의 소개와 흥행성공 이후이다. 서울뮤지컬컴퍼니가 2001년 개봉한 임순례 감독의 영화 〈와이키키 브라더스〉에서 모티브를 차용해 뮤지컬 〈와이키키 브라더스〉를 제작하여 2004년 초연한 것을 시작으로 같은해 PMC 프로덕션에서 7080시대의 음악과 소재들을 주제로 제작

한 〈달고나〉와 다음해 자우림의 노래로 만든 〈매직 카펫 라이드〉 등 지속적으로 주크박스 뮤지컬에 제작되어 2011년엔 주크박스 뮤지컬 붐이 일기도 했다.

### 2.2.2 음악영화와 영화음악

음악영화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음악을 주요소로 하는 영화’이다. 이처럼 음악영화의 장르적 특성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중심으로 극을 진행하는 영화, 즉 내러티브에 음악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영화를 뜻한다. 음악영화를 좀더 세분화 시켜보면 음악가를 다룬 다큐멘터리에서부터 음악가의 일생을 그린 전기 음악영화, 그리고 음악이 영화의 흐름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영화, 감정이나 대사 등을 음악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의 영화 등 음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모든 범주를 포함하여 음악영화라고 지칭한다(이순화, 2011, p. 8).

영화 〈라디오스타〉는 대표적인 음악영화로 한물간 88년도 가수왕이야기이다. 이 영화에서 노래 ‘비와 당신’은 88년도 주인공이 가수왕을 차지했을 당시 불렀던 노래로 영화의 흥행과 함께 노래 또한 인기를 끌었다.

영화 〈썸시봉〉은 대한민국 음악계에 포크 열풍을 일으킨 조영남, 윤형주, 송창식, 이장희 등을 배출한 음악감상실 ‘썸시봉’을 배경으로 그 시절을 풍미했던 통기타 음악과 한 남자의 잊지 못할 첫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낸 작품으로 추억의 통기타 음악은 관객들의 향와 공감을 불러일으켰다.

영화음악은 일반적으로 OST라고 하는데, 영화에 삽입되는 모든 음악을 총칭해 오리지널사운드 트랙, 즉 OST(Original Sound Track)라



〈그림 1〉 영화 「라디오스타」 포스터



〈그림 2〉 영화 「건축학개론」 포스터

고 한다. 음악은 영상에 맞게 그때그때마다 다른 방식으로 삽입된다. 원래 있던 기존 곡을 쓰기도 하고 창작곡을 새로 만들기도 한다. 기존 곡을 사용할 경우 관객들이 이미 알고 있는 곡을 영상과 접목해 좀 더 친숙한 느낌을 가지게 한다. 또한 예전에 인기 있었지만 지금은 잊혀지고 있는 올드 팝이나 대중에게 인지도가 낮은 인디밴드의 곡들이 OST로 쓰이면서 다시 빛을 보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음악 또한 영화와 결합했을 때 새롭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김정아, 2013).

영화 <건축학개론(2012)>은 90년대 시절 풋풋했던 스무 살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다. 영화적 배경이 90년대인 만큼, 그 당시 유행했던 대중가요가 다수 삽입되었는데 전람회의 '기억의 습작'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음악이면서도 영화 내러티브와 연결되어 등장인물들의 심리적 기능을 하기도 하며, 영화의 메인 테마 역할을 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2011)>은 1990년 10월 13일 당시 대통령 노태우가 민생치안 확립을 위

해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을 배경으로 비리 세관 공무원 최익현이 부산의 건달 최형배를 만나 세력을 확장하며 겪는 갈등과정을 그렸다. 이 영화에는 함중아의 곡을 장기하와 얼굴들이 리메이크한 '풍문으로 들었소'가 배경음악으로 흐른다. 최형배와 최익현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 전 많은 부를 쌓으며 승승장구 할 때 울려 퍼진다. 영화에서 가장 통쾌한 부분과 함께한 이 노래는 '범죄와의 전쟁'과 떼려야 뗄 수 없다.

### 2.2.3 책 속의 대중가요

소설 속에서 대중가요는 등장인물의 심경을 변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주거나 심경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소설 속 배경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러한 예로 먼저 양귀자의 소설 『한계령(1987)』이 있다. 소설 『한계령』에서 노래 <한계령>은 소설의 주인공 '나'와 갈등관계에 놓여있는 고향친구 은자가 부르는 대중가요의 제목이며 소설의 제목이다.

탁 트인 음성의 노래가 여가수의 붉은 입술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였다.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 발 아래 젖은 계곡 칩칩산중……. 가수의 깊고 그윽한 노랫소리가 홀의 구석구석으로 스며들면서 대신 악단의 반주는 점차 희미해져갔다. 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나가서 노래를 맞아들이고 있었다. 무언지 모를 아득한 느낌이 내 등허리를 훑어내리고, 팔뚝으로 번개처럼 소름이 돌아났다.

“이산 저산 눈물 구름 물고 다니는 떠도는 바람처럼 저 산은 내게 내려가라 내려가라 하네지친 내 어깨를 떠미네”

어느 한순간 노래 속에서 큰오빠의 쓸쓸한 등이, 그의 지친 뒷모습이 내게로 다가왔다. 그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나는 눈을 감았다. 눈을 감으니까 속눈썹에 매달려 있던 한 방울의 눈물의 불을 타고 흘러내렸다.

- 소설 『원미동 사람들』 중에 한계령에서(양귀자, 2006, p. 213) -

노래 가사 속에서의 한계령은 가파른 한계령에 올라 발아래 펼쳐진 산들을 내려다 볼 때의 막막함이 느껴진다. 그러나 산은 한편으로는 한 줄기 바람과 같은 새로운 희망을 주기도 한다. 이 소설에서 한계령은 주인공의 쓸쓸함과 적막감을 대변해주는 매개로만 등장한다. 하덕규가 작곡하고 양희은이 노래한 한계령은 80년대를 대표하는 민중가요 중 하나로, 소설 속에서는 슬프고도 그리운 고향에서의 유년기와 현실 속에서의 삶, 그리고 힘겨웠던 큰오빠의 삶을 연결시켜주어 모든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조윤식, 2015).

두 번째는 황석영의 소설 『삼포 가는 길(1974)』이다. 소설 『삼포 가는 길』에서 노래 〈흑산도아

가씨〉는 인물의 심정을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영달이 눈에 청주떡이 예사로 보였을 리 만무했다. 까무잡잡한 얼굴에 곱게 치며서 흘리는 눈길하며, 밤이면 문밖에 나가 앉아 하염없이 불러대는 〈흑산도 아가씨〉라든가, 어쨌든 나중엔 거의 환장할 지경이었다.

- 소설 『객지』 중 삼포 가는 길에서(황석영, 1974, p. 293) -

남몰래 서러운 세월은 가고 물결은 천 번 만 번 밀려오는데 못견디게 그리운 아득한 저 육지를 바라보다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한없이 외로운 달빛을 안고 흘러온 나그넨가 귀양살인가 에타도록 보고픈 머나먼 그 서울을 그리다가 검게 타버린 검게 타버린 흑산도 아가씨

- 노래 〈흑산도 아가씨〉 가사 -

소설에서 청주떡은 처녀적 열차를 타며 전방으로 호송되는 군인들한테 개피떡이나 인절미를 팔았던 인물로 절름발이 천가와 결혼한 후 한곳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 인물로 청주떡이 느끼고 있는 억압된 감정을 그녀가 밤마다 부르던 노래 흑산도 아가씨를 통해 표현하였다.

세 번째로 조정래의 소설 『태백산맥(1986)』에서는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는 시대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역할로 쓰였다.

모두는 다방으로 들어갔다. 네댓 명의 소님이 두 테이블에 나누어 앉아 있었고, 〈울고넘는 박달재〉가 다방 안을 출렁출렁 넘쳐흐르고 있었다. ‘빨갱이’라는 말만큼이나 유행하고 있는 노래였다.

“소리 켜여.”

염상구는 레지에게 눈꼬리를 세웠다. 그리고 그 눈길을 한쪽 테이블로 옮겼다. 그때 벌써 젊은이 넷은 부리나케 의자들 사이를 빠져 나가고 있었다. 청년단원들이었다.

- 소설 『태백산맥 제1부恨의 모닥불』 중에서  
(조정래, 1986, p. 103) -

노래 〈울고 넘는 박달재〉는 6.25직후 50년대에 전국적으로 크게 유행했던 노래다. 해방 후 작사가 반야월이 남대문 악극단을 창설한 후 지방으로 순회 하던 중 비 내리는 박달재에서 어느 농촌 부부의 애절한 이별 장면을 보고 만들었다. 이후 6.25 전쟁이 나자 경북 문경 쪽으로 피난길에 오른 피난민들이 울고 넘는 박달재를 같이 불렀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대중가요는 다양한 매체의 소재로 사용이 된다.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다. 대중가요는 단 3분여의 짧은 시간 안에 드라마틱한 감동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전 연령층을 아우를 수 있다. 대중가요가 가지고 있는 공감의 힘 때문이다. 이러한 공감이 가능한 이유는 대중가요와 함께 웃고, 울고, 기뻐하고, 아파하며 만들어진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 2.3 '이야기'아카이빙의 필요성

요즘 들어 '일상생활', '생활', '일상적'이라는 말만큼 사회 각 분야에서 자주 들리는 단어도 드물다. '생활정치', '생활풍수', '노동자들의 생활상태', '노인들의 일상생활', '영화 속의 일상', '생활 속의 명상' 등 실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이

제는 특별한 '사건'이나 거창한 역사보다 우리와 밀착된 '일상'이나 '생활'에 관련된 문제가 더욱 중요한 의미로 부각되고 있다. 그리하여 '일상생활'은 현대의 화두가 되었다(박재환, 2008, p. 23). 일상이란 '사소하고 반복되는' "진부하기 짝이 없는 다양한 행위들로 이루어진" 세계이다(곽건홍, 2011, p. 7). 그러나 겉보기에 무의미한 듯한 사실들 속에서 중요한 어떤 것을 잡아내고, 그 사실들을 잘 정돈함으로써 이 사회의 정의를 내리고, 또 이 사회의 변화와 전망을 정의할 수 있다. 일상성은 하나의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개념을 '사회'를 알기 위한 실마리로 간주할 수 있다(앙리 르페브르, 2005, p. 85).

역사학에서는 이미 지난 세기부터 객관적인 '역사'에 대한 의문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검증된 '사료'를 통해 공인된 '역사'가 아닌 개인적인 주체의 경험을 통해 구술되는 '과거'가 역사 연구의 주요 대상으로 떠올랐다(키스 켄킨슨, 1999, p. 55). 과거는 일어난 일을 말하며 그것은 이미 사라져 버렸고, 사라진 것들은 역사가들을 통해 다시 살아나는데 이때 역사란 과거에 관한 하나의 담론이다(안병직, 2006, p. 226). 따라서 역사는 객관적일 수 없다. 그동안 역사는 역사적 현상들 가운데 중요한 것들을 취사선택하여 해석과 의미를 부여하는 역사연구와 서술의 전체 작업이 근대화, 산업화, 합리화, 도시화 등으로 개념화되는 거대한 구조적 변화과정에서 초점을 맞추어왔다(안병직, 2006, p. 226). 그러나 일상사는 역사인식이 구조가 아닌 인간에 초점을 맞춤에 따라 등장했다. 구조란 인간과 분리된, 인간의 외부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과 통합된, 인간에 의해 실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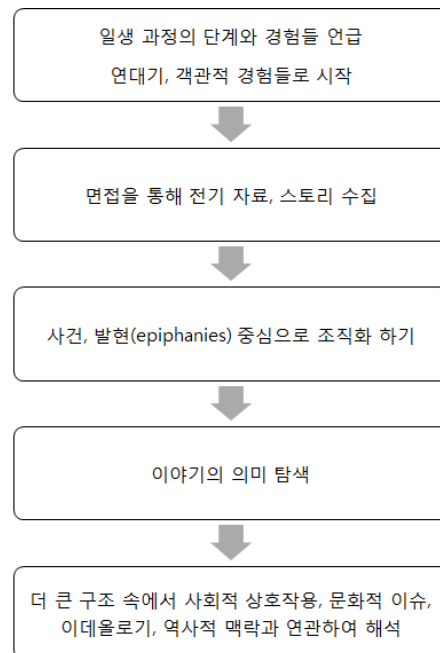
란 일상적 삶과 문화에 주목하여 역사에서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 현실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안병직, 2006, p. 411).

이러한 움직임은 기록학에서도 볼 수 있는데 광건홍(2011)은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상 아카이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일상 아카이브란 ‘보통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를 의미한다. 현대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 삶의 구조를 파악하려면 다양한 형태의 일상 아카이브를 만들어야 한다.

심성보(2011)은 개인이 주체가 되는 역사의 기본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인간과 사회,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산되어 온 기록의 본질에 가장 가까이 접근해갈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일상 아카이브 구축을 제시하였다. 일상이 삶의 표상이라면 세상에 산재한 일상의 흔적은 인간의 삶과 가치관을 가장 근접하고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료이며 동시에 기록이다. 잡담이 의미하는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성은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는 과정에서 시대가 객체에 던져준 경중의 척도를 의미할 것이며,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추억의 사진은 과거를 역사로 재구성하는 지표로서 가치를 지닐 것이다.

개인들이 행위 하고 있는 일상에 대한 연구를 위한 대표적인 영역이 전기, 자서전, 생활사, 구술사, 생애사 등이다. 이 방법은 연구자에게

말해지거나 문서기록물에서 발견되는 한 개인과 그 경험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단계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림 3> 전기 및 생활사 연구 단계

이 방법은 개인의 일생 과정에서의 경험들을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로 수집하고 수집된 개인의 경험들을 사건, 발현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의미를 탐색하고 더 큰 구조 속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문화적 이슈, 이데올로기, 역사적 맥락과 연관하여 해석하는 방법이다(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2008, p. 94).

이러한 연구의 한 예가 ‘인간과 기억 아카이브’에서 진행하고 있는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이다. 이 이벤트는 2013년 첫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시작으로 매년 5월 12일 일기수집 이벤트를 개최하고 있다. 일기는 날마다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개인의 기록(국립국어원)으로 다양한 계층에 의해 일상에서 생산된다. 이러한 일기는 한 개인의 행적과 사고방식을 담는 글이다. 일기는 역사학뿐만 아니라 인류학, 언어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최효진, 임진희, 2015).

일기 수집 이벤트가 어느 한 시점에 대한 이야기를 수집했다면 대중가요는 이러한 연구 방법에서 잊혀진 개인적 경험들,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이야기를 만들기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도구가 된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곤 하는데 대중가요가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래에는 회상과 추억으로 끌어들이는 강력한 힘이 있다.

이는 음악심리학적으로도 설명된다. 일본의 음악심리 카운슬러 사이토 히로시는 “감정은 시각으로 들어오는 정보보다 청각으로 들어오는 정보에 더 빠르게 움직인다”고 말한다. “뇌의 반응 역시 시각보다 청각에서 오는 자극에 더 민감하다. 그래서 소리, 그리고 음악은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감동적인 음악은 아주 짧은 순간에 감정을 자극해 눈물을 흘리게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뇌과학자 대니얼 레비틴은 “많은 사람들이 음악 덕분에 오랫동안 묻혀 있던 기억이 생각났다고 말하는데, 대중적인 사랑의 노래가 특히 그런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뇌 과학자다운 설명을 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각인되는데 문제는 이를 끄집어내는 것”이라면서 ‘인출 단서’라는 말을 사용한다. 음악이 뇌에서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도록 돕는 효과적인 ‘인출 단서’ 역할을 한다

는 것이다(김철웅, 2015, pp. 67-68).

대중가요를 들음으로써 소환된 기억들은 우리가 겪고 생활했던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러한 기억들은 말이나 글을 통해 이야기로 만들어 진다. 또한 이야기를 나누는 행위를 통해 인간의 삶을 축적시키고 타인의 기억에 개입을 하며 더 풍성한 이야기를 만들어 주기도 한다. 이러한 이야기는 그동안 역사에서는 담지 못했던 보통사람들의 소소한 삶을 반영하는 중요한 일상 기록이 된다.

### 3.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이야기'컬렉션 수집 사례

#### 3.1 '이야기' 수집 대상 선별

한국 사람들은 사람들과 만나 일명 '수다 떨기'를 좋아한다. 카페나 커피숍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인데도 만나 자기 이야기부터 시작하여 친구, 회사 동료, 가족과 친지에게로까지 그 범위를 확장시켜가면서 몇 시간이고 수다를 떠다(우정권, 2009, p. 8).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발현형태는 오늘날 단일하지 않다. 실제 현장 외에 TV 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판이 있으며, 네트워크 온라인상의 이야기판도 있다. 인터넷 네트워크에 축적된 이야기는 종류와 양의 측면에서 또한 소통의 폭과 속도 면에서 가히 놀라운 데가 있다. 무한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수많은 이야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향유되고 있다(신동훈, 2009, p. 8). 이에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이야기의 출처 중 직접 수집이 가능한 몇몇 대상을 선별하여 이미 존재하는

대중가요에 얽힌 무수한 이야기들 중 일부를 수집해보고 그 이야기들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대표적인 매체가 라디오 사연이다. 라디오에 자신의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고 그 이야기들은 음악과 연결된다. TV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사연을 종종 접할 수 있다. 음악 예능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으며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만으로 제작된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가장 많은 양의 이야기가 발견되는 매체는 단연 개인 블로그이다. 블로그에는 하루에 수백만 건의 글이 작성되고 있으며 그 중 대중음악에 얽힌 개인의 이야기 또한 상당하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수집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수집된 이야기들은 중요한 일상 기록으로써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 3.1.1 라디오 사연

지금은 다양한 매체의 성장으로 라디오를 듣는 사람들이 줄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종종 라디오에 노래를 신청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라디오는 디제이가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일상이나 삶의 애환을 나누기에 좋은 매체이다. 그리고 음악이 함께한다.

한국리서치에서 실시한 '2015년 라디오 청취율 조사 1라운드'의 1-20위에 든 라디오 프로그램의 코너를 살펴보면 시사/경제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연과 신청곡을 소개하는 코너를 진행하고 있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라디오 프로그램의 코너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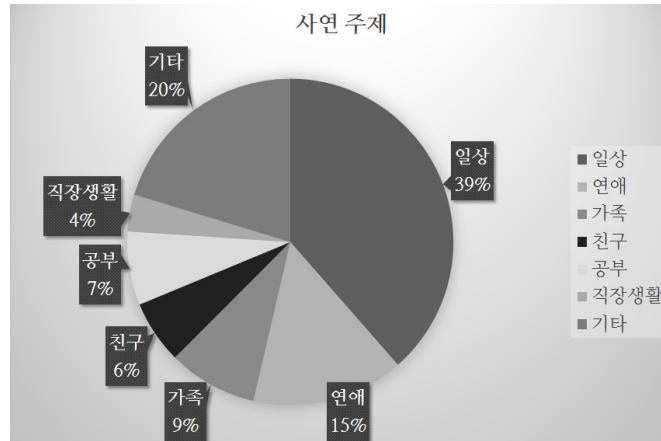
사연과 신청곡을 받아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대상으로 게시판에 작성되는 사연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게시판의 게시글이 비공개로 작성되어 관계자 외 접근이 불가능하다. 게시판의 글이 비공개로 작성되는 프로그램은 사연을 수집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라디오 프로그램 중 모든 사연이 공개로 작성되어 사연 수집이 가능한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속 '리퀘스트 뮤직' 코너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매일 저녁 10시부터 두 시간동안 진행되는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는 일주일 중 하루, 일요일 밤에 사람들이 '리퀘스트 뮤직' 게시판 (<http://www.imbc.com/broad/radio/>)에 올린 사연을 소개하고 신청곡을 들려준다. 게시판은 로그인 후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수집 대상은 처음 글이 게시된 2015년 7월 11일부터 수집 시점인 2016년 5월 15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작성된 사연 중 사연 없이 신청곡만 쓰여진 글을 제외한 280개의 사연으로 그 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은 게시판 속 사연을 주제별로 분류하여 도표화 하였다(〈그림 4〉 참조).

라디오 사연을 주제별로 나눠보면 크게 7가지로 나누어진다.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가 일상을 주제로 한 사연이고, 그 다음으로 연애, 가족, 공부, 친구, 직장생활이 있다. 기타는 디제이에 대한 편지 형식의 글이다.

사연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주제는 일상이야기이다. 일상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그 날 하루 있었던 중 기억에 남는 일을 일기와 비슷하게 작성한 글이다. 두 번째는 현재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대한 글이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주제는



〈그림 4〉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 리퀘스트 뮤직 코너 사연 주제 비율

연애이다. 대중가요의 대부분의 가사가 사랑 이야기 듯이 사연에서도 연애이야기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다. 연애이야기는 짝사랑, 연애, 이별에 대한 이야기로 나뉜다.

다음은 가족이야기를 주제로 한 사연이다. 가족을 주제로 한 사연은 가족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사연, 돌아가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사연, 어렸을 적 추억을 떠올리는 사연으로 나뉜다.

친구에 대한 주제로 쓰여진 사연들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한 사연과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 대한 반가움을 표현한 사연으로 나뉜다.

공부에 대한 사연은 대부분 시험을 앞둔 학생들이 힘들음을 토로하는 글들로 음악으로 위로받고자 하는 사연들이다.

직장생활에 대한 사연들은 업무에 대한 힘들음을 표현하는 사연이다.

### 3.1.2 TV 프로그램 사연

지금까지 방송된 TV 프로그램 중 수집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은 역사적 사실과 연관된 노래

와 그 시대를 지낸 일반인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가 주를 이룬다. 이러한 다큐멘터리는 그 시대를 지내온 인물들의 인터뷰와 그 당시 부르던 노래를 통해 역사를 보는 돌아보는 성격을 띠기 때문에 오래전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 사연의 오래전 이야기의 부재에 대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노래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 TV 프로그램 중 가장 긴 시간의 역사를 돌아본 KBS 1TV '다큐1-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을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역사뮤직 다큐 '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2부작'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집합적 정서를 대변하는 노래와 여기에 얹힌 다양한 이들의 증언으로 구성되었다. 대중가요를 통해 우리가 함께 걸어왔던 지난날을 입체적으로 돌아보고 세대를 뛰어넘는 공감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 속 인터뷰 목록은 〈표 2〉와 같다. 아래 목록은 프로그램 속 인터뷰를 목록화하였다. (인터뷰이의 실명은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된 것으로 별도로 익명 처리하지 않았다.)

〈표 2〉 프로그램 속 인터뷰 목록

곡명	인터뷰이	비고
이인권-귀국선 (1949)	이용순(88)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현인-굳세어라 금순아(1953)	한금순(86)	홍남부두 피난민
	신현학(81)	
백설희-봄날은 간다(1953)	이화원(60)	
	장사익(67)	
한명숙-노오란 샤쓰의 사나이(1961)	유재식(84)	
이미자-동백아가씨(1963)	윤기복(70)	파독간호사
남진-님과함께(1972)	김숙자(60)	15세 상경
	홍순선(62)	16세 상경
문주란-공항의 이별(1972)	권태준(68)	
조용필-돌아와요 부산항에(1972)	김이도	재일교포2세
	심기수(88)	재일교포2세
	주만순(86)	재일교포2세
김민기-아침이슬(1971)	김찬수(54)	
	최윤영(55)	
황석영-임을 위한 행진곡(1982)	김길자(76)	故문재학의 어머니
이용-잊혀진 계절(1982)	박양숙(52)	
	이근덕(54)	
들국화-그것만이 내세상(1985)	기화수(50)	
	조영민(53)	
	김명섭(51)	
노래를 찾는 사람들-그날이 오면	정덕환(50)	
	남찬숙(50)	
	김지윤(51)	
이문세-옛사랑(1991)	서정민(43)	
서태지-교실이데아(1994)	김진호(34)	
	김현경(35)	
양희은-상록수(1997)	김일두(47)	
	이광숙(53)	
YB-오 필승 코리아(2002)	김창균(34)	
	김성현(30)	
	류성용(46)	
PSY-강남스타일(2012)	김명섭(51)	
	박명재	
김광석-서른즈음에(1994)	이영복(26)	
	김민철(43)	

### 3.1.3 개인 블로그 사연

블로그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웹(Web)과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를 줄인 말로, 인터넷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따

라 자유롭게 글을 올리는 개인 사이트를 지칭한다. 현재 블로그는 단순히 기록과 정보전달의 목적을 넘어 개인의 자아 추구로서의 역할과 사회적인 커뮤니케이션 형성을 위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다.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소통하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글들은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이 올라오고 공유되고 있다. 또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블로그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 비해 검색이 용이하다. 이에 블로그 속에서 무수히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수집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모든 글들을 수집·선별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몇 가지 검색어를 선정하고 상세검색을 통해 정확도를 높여 검색을 진행하였다.

우선 검색어는 음악과 이야기를 모두 담고 있는 검색 결과를 위해 '음악'과 '이야기'를 주요 단어로 설정하여 비슷한 쓰임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선별하여 그 단어들을 조합하였다. '음악'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노래', '곡' 등의 단어를 이용하였으며 '이야기'를 대신할 수 있는 '추억', '기억' 등의 단어와 '이야기'의 주제로 많이 쓰인 '일상', '인생' 등의 단어를 추가하여 조합하였다. 조합된 검색어들 중 연관 검색어나 자동완성기능을 이용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검색어를 선정하여 '나의 음악 이야기', '추억의 노래', '인생노래', '일상노래' 네 가지를 최종 검색어로 선정하였다. 이 검색어를 통해 네이버 블로그(<http://blog.naver.com>)에서 검색을 진행하였다. 또한 필요에 따라 상세검색을 이용해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검색어를 통해 검색된 결과는 총 2,589,626건으로 각각의 검색어에 따라 이야기들의 주제가 몇 가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다.

'나의 음악이야기'로 검색한 결과 1,058,842건

의 블로그 글이 검색되었다. 이 검색어는 검색 결과 중 음악과 관련된 나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담겨있던 검색어로 검색된 포스팅의 내용은 처음 음악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야기, 인생에서 기억에 남는 음악, 좋아하는 뮤지션, 음악에 얽힌 어린 적 추억 등이다.

<표 3> 네이버 블로그 검색어별 포스팅 갯수

	검색어	포스팅 수(건)
1	검색어 '나의 음악 이야기'	1,058,842건
2	검색어 '추억의 노래'	36,797건
3	검색어 '인생노래'	930,778건
4	검색어 '일상 노래'	563,209건
	총합	2,589,626건

'추억의 노래'로 검색한 결과 36,797건의 포스팅이 검색되었다. 이 검색어는 과거에 들었던 노래에 대한 포스팅이 주를 이뤄 비교적 오래전 노래들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이때 검색 결과와 함께 7080, 8090 등과 같은 연관검색어들이 눈에 띈다. 이러한 연관검색어처럼 포스팅의 내용은 '7080추억의 노래', '8090추억의 노래', '비오는날 들으면 좋은 80년대 노래'와 같이 노래를 통해 시대를 추억하고 공감하는 내용이다.

'인생 노래'로 검색한 결과 930,778건의 포스팅이 검색되었다. 이때 인생노래는 두 가지 의미로 이용되었다. 첫 번째는 내 평생에 걸쳐 듣고 싶은 내 인생의 노래라는 의미로 보통 자신의 음악적 성향에 맞는 노래를 일컫는 말로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다.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노래라는 뜻으로 내 인생에서 의미를 가졌던 노래나 내 인생을 이야기 하는 것 같은 가사의 노래를 뜻한다. 이 검색어를

통한 포스팅의 검색 결과 내용은 첫 번째의 의미로 검색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요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노래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 의미로 검색어가 사용되었을 때는 오랫동안 즐겨듣던 노래와 그게 얽힌 이야기이다.

‘일상 노래’로 검색한 결과 563,209건의 포스팅이 검색되었다. 이 검색어를 통한 검색 결과는 가장 소소하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는 포스팅으로 일기와 비슷한 형식을 보인다. 일상 속에서 있었던 일과 함께 들었던 노래를 소개하거나 그날의 날씨나 감정상태에 따라 들으면 좋을 법한 곡들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많다.

네 가지 검색어를 이용하여 검색한 결과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를 담고 있는 포스팅이 총 2,589,626건이다. 그 중 중복검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검색결과를 살펴봤을 때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몇 가지 단어의 조합만으로 얻은 결과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실제 블로그에 존재하는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들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또한 그 이야기들이 몇 가지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주제별로 분류가 가능하다.

포스팅된 글들은 자유로운 형태로 작성이 되는데 이때 글과 함께 글에 어울릴 듯한 그림이나 자신의 기분을 나타내는 이모티콘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글로만 작성되는 라디오 사연과 구분되는 점이다. 이러한 그림이나 이모티콘은 글을 작성한 글쓴이의 상황이나 기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블로그 포스팅은 댓글을 통해 타인과 소통하고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블로거가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고 댓글을 통해 공감을 표시하

고 자신의 의견을 내비친다. 노래를 통해 시대를 공감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한다.

### 3.2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이야기’컬렉션 수집 결과

앞에서 제시한 ‘이야기’ 수집 절차에 따라 다양한 미디어 속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를 직접 수집하였다. 수집된 이야기는 노래에 얽힌 이야기, 가수에 얽힌 이야기, 공연에 얽힌 이야기로 구분된다.

#### 3.2.1 노래에 얽힌 이야기

노래에 얽힌 이야기는 두 가지이다. 노래를 듣고 예전의 어느 한 시점이 떠오르거나 어떠한 상황이나 감정에서 어느 한 노래가 떠오르거나 하여 쓴 이야기이다. 먼저 노래를 듣고 추억을 떠올리는 사연은 노래를 듣고 예전의 기억을 떠올리는 사연은 과거에 노래가 함께했던 시점을 추억하는 것으로 노래로 위로를 받았거나 즐거움을 함께했던 기억들이다. 라디오 사연 속 노래에 얽힌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연의 제목은 임의로 작성된 것이다.)

〈 ‘돌아가신 아버지와 같이 듣고 싶어요’ / 자이언티-양화대교 〉

깊어가는 가을 밤,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이승환의 가족과, 자이언티의 양화대교입니다.

이 노래들은 제게 언제나 돌아가신 친정 아버지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려웠을 때는 철없이 아버지를 원망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두 아이의 엄마가 되고 나니... 그때는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제는 조금 알 것도 같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백 번, 천 번 속을 썩여도 단 한번 웃게 한 그 모습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을. 제가 조금 더 일찍 철이 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생전에 아버지한테 살가운 딸도 못 되어드리고 늘 힘들다 투덜거리는 못한 딸이었음이 요즘따라 왜 이리 죄송하고 가슴 아픈지... 아마 하늘나라에서도 험한 세상에 혼자 두고 간 외동딸을 걱정하실 아버지와 같이 듣고 싶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많이, 정말 많이 보고 싶어요. 눈물 나도록 당신이 그리웁습니다.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29)

〈 '남자친구에게 들려주고 싶어요' / 홍대광-잘됐으면 좋겠다. 〉

홍대광 - 잘됐으면 좋겠다.  
남자친구와 3년을 만나면서 3년의 반을 군인인 남자친구를 기다리면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 서로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고 불같이 서로 좋아하면서 어느 누구보다 서로를 아꼈어요. 하지만 군대리는 큰 벽이 제 마음을 많이 흔들었어요. 흔들릴 때마다 소중한 남자친구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첫 만남을 떠올리면서 마음을 컨트롤 하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자주 즐겨듣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홍대광의 잘됐으면 좋겠다.였어요. 서로 잘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밤 잠 설치던 그때 감정들이 저를 많이 바꿨고, 지금은 제가 더 남자친구를 좋아한다고 느낄만큼 좋아졌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병장이 되는 남자친구가 1월의 마지막 밤을 꿈꾸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당직을 서고 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우리의 첫 만남 설레임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183)

〈 '어릴적 누나와 놀던 추억' / 공일오비-친구와 연인, 윤상-이별의 그늘 〉

어릴적에 누나와 저는 엄마만 안 계시면 집에서 둘이 콘서트를 했어요.  
남자 여자 파트도 정해서 나누어 부르고, 노래가 사에 맞게 몸짓도 만들었죠. 물론 대부분 누나가 하지는 대로 하는 허수아비였지만 지금도 그 노래들을 들으면 그때 추억이 떠오르네요.  
참 여자답게 자랐던것 같아요.  
제가 좋아해서 늘 첫 순서로 불렀던 공일오비의 "친구와 연인" 그리고 누나가 저에게 가장 많이 파트를 분해해줬던 윤상의 "이별의 그늘" 신청합니다. 누나와 같이 듣고 싶네요.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326)

〈 '귀국선에서' / 이인권-귀국선(1949) 〉

16세 어린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이용수(88세) 할머니는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안고 귀국선에 올랐다. 그때 배에서 들리던 노래 〈귀국선〉은 지금 들어도 눈시울을 붉히게 한다. "귀국선을 타고 나니까 막 노래가 나오는데...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국산천 찾아서.. 얼마나 울었던가 무궁화꽃을, 얼마나 외쳤던가 태극기발을' 얼마 가슴 아픈 일입니까? 파도는 춤추고, 귀국선 뱃머리에 희망도 크다. 나는 지금도 이 노래를 부르면 통곡을 해요. 평평 울어요... " (KBS 1TV '다큐1-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다음으로 자신의 상황이나 감정에 따른 노래에 대한 사연은 '이 노래가 내 이야기 같다.'라고 느끼는 경우이다. 노래 속 상황에 감정을 이입



1. 조성모 - to heaven

이 때 조성모를 참 좋아했다. 심지어 조성모랑 결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정도니까. 왜 그랬지...  
 "잘자 내 꿈꿔" 요멘트로 한참 유행하던 cf에 조성모랑 같이 출연했던 이정현에게 심한 질투를 느끼기도 하고...  
 노래에 대한 애정이 가수에게까지 옮겨붙은 탓이었을 게다.  
 그때 우리 집이 컴퓨터를 사기 좀 전이라 가사를 찾아볼 수도 없고 노래를 맘대로 들을 수가 없어 이 노래를 한 번이라도 더 듣고 싶어 안달이 나있었는데 마침 지역방송이었던 kbc 음악캠프에서 (mbc 거가 아니라 광주지역내에서 하는...) 이 노래가 흘러나와 가사가 지나가기 전에 팔 빠지도록 노트에 적었던 기억이 난다. 동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름대로 성과가 있어 그걸 보면서 부르고 또 부르고 완장을 위해 열심히 연습했다. 그러다 고모가 졸업선물로 카세트 플레이어를 사줘서 처음으로 노래테잎이라는 걸 샀고 그게 바로 조성모의 1집. 이 노래가 수록된 앨범이었다. 여전히 시골집 책상서랍에 고이 간직되어있는 이 테잎. 이제는 일부러 꺼내 듣는 음악은 아니지만 우연히 라디오에서 이 노래를 듣게 되면 반갑고 지금은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 노래를 듣고 부르려 했던 기억이 떠올라 더 소중한 애뜻한 느낌이 든다.

〈그림 5〉 ‘나의 음악이야기’ 검색 결과  
 (<http://blog.naver.com/braveyyj/10024210660>)

하기도 하고 자신의 감정을 노래로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사연은 다음과 같다.

한테는 그\_냥의 “고독”을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18)

〈 ‘엄마랑 씨웠어요’ / 윤상-re:나에게, 그\_냥-고독〉  
 엄마와 냉전상태입니다. 진로 때문이죠. 취준생 이거든요. 자식이 편한 삶,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으면 하는 부모님 마음, 어린 나이지만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시도는 해보고 좌절하고 싶거든요. 후회를 해도 내가 하는 거라며 쏘아붙인 뒤로 연락을 하지도,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엄마가 아무 말 없이 용돈을 부쳐주셨어요. 입금내역에 엄마 이름이 적혀있는 걸 보고 울컥하더군요. 이런 일로 엄마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가 너무 나쁘게 느껴지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구요. 엄마는 수십년의 시간을 저 때문에 포기하고 사셨을 텐데. 전과에 사연곡으로나마 제 마음을 띄워보내고 싶어요. 저, 그리고 저와 비슷한 사연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을 제 또래들에게는 윤상의 “re:나에게”, 그리고 엄마

〈 ‘친구들을 찾고 싶은 오늘’ / 헨섬피플-그런 날이 있잖아〉  
 헨섬피플 - 그런 날이 있잖아 신청합니다! sns를 둘러보니 친구들이 하나 둘씩 졸업하는 모습이 담겨있는 사진들을 보며, 시간 정말 빨리 흘러간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더 넓은 사회로 발돋움할 친구들을 생각하다가 문득 생각난 노래입니다. 노래는 한 사람에 대한 내용이지만, 가사처럼 ‘추억을 핑계삼아’ 다시 여러 친구들을 찾고 싶은 오늘이네요~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208)

〈 ‘짝사랑이 끝났어요’ / 어반자카파-봄을 그리다〉  
 늘 혼자 좋아하는 마음만으로 끝이났네요. 이제 좋은 사람 많아서 그 사람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겨울 밤 오늘은 이노래가 생각 납니다.  
노래 처럼 언젠가 저에게도 다시 봄이 오겠죠.  
보고싶다.... 많이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45)

〈'수고했어 오늘도'/ 옥상달빛- 수고했어 오늘도〉  
안녕하세요 테디! 졸업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  
는 대학 4학년입니다. 미대라는 특성상 졸업전시  
회를 앞두고 어쩌다보니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  
었습니다. 잘 나서지 못하는 소심한 성격 탓에  
걱정이 되어 몇날 밤을 설치고 있는데요 ππ 긴장  
되고 불안하고 제 뒤로 보이는 저를 따라오는  
사람들에 조금 부담이 됩니다. 잘하라는 응원과  
골머리 아픈 오늘의 고민을 날려줄 옥상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테이의 꿈꾸는 라디오 사연 No.256)

〈'홍남부두에서 오른 피난길'/ 현인-굳세어라  
금순아(1953)〉  
피난민 6천5백만 명, 한금순(86세)씨는 두 남동  
생과 함께 쫓기듯 올랐던 피난길에 밤낮없이 걸  
어 홍남부두에 도착했다. 홍남부두는 영하 27도  
에 배를 타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는 전제민 1천1만 명을  
낳은 전란 속에서 삶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주었다.  
"1.4 후퇴 때 눈보라 치는 그 홍남부두에서 배를  
타고 피난 나왔어요.  
그래서 '굳세어라 금순아'를 들으면 나한테 맞춰  
서 한 노래 같아요.  
이렇게 굳세지 않았으면 살지도 못 해요."  
(KBS 1TV '다큐1-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  
트랙')

〈'위로의 노래'/ 김광석-서른즈음에(1994)〉  
직장인 김인철씨는 43살이다. 24살에 처음 들었  
던 서른 즈음에는 10살 아이의 아빠가 된 지금까  
지도 그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 불안했던 서른  
즈음을 위로해줬던 노래는 마흔 즈음의 위태로  
움도 달래주고 있다.  
"저한테 '서른 즈음에'는 위로가 됐어요.  
너만 힘든 것 아니야, 다 이렇게 살고 있어.  
모두 버티고 있어, 견디고 있어. 그런 의미.  
저한테 위로를 많이 줬던 노래예요."  
(KBS 1TV '다큐1-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  
트랙')

### 3.2.2 가수에 얽힌 이야기

가수에 얽힌 이야기는 대중이 기억하는 가수  
에 대한 평가가 대부분이다. 그 가수가 대중에  
서 어떻게 인식이 되어왔고 어떻게 평가를 받  
아왔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이야기이다.

〈'교실이테아'/ 서태지와 아이들-교실이테아  
(1994)〉  
1992년 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에 청소년들은  
열광했다. 서태지는 문화대통령이라고 불리었고  
그의 노래는 청소년들의 생각까지 변화시켰다.  
서태지는 기성세대의 질서와 가치를 흔드는 가사  
를 연이어 발표했다. 직장인 김진호(34세)씨는  
그 당시 서태지를 다음과 같이 기억한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노래가 있을 수 있나?  
세상에 저렇게 특이하게 옷을 입고 저렇게 멋있  
게 춤 추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나?  
서태지와 아이들이 데뷔했을 때 4학년이었는데  
그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긴 가수는 전혀 없었어요."  
(KBS 1TV '다큐1-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 나의 음악이야기 그리고 신해철 >

음악..노래없이 못사는 그런 나에게... 신.해.철.....  
 이라는 사람은.  
 그의 오래된 팬이다. 나는 그가 좋았다. 솔직해서  
 좋았고, 그의 숨은 곡들이 좋았고,  
 애교 많은 것도 좋았다. 똥똥해져서도 당당해서  
 좋았지..  
 아내의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있어보여  
 서 좋았고,  
 딸들 사랑하는 마음이 이뻐서 좋았다.  
 100분토론 나와서 이야기할때도 엄청 재미있었고,  
 귀옆에 문신도 그냥 좋더라.  
 완전 신해철매니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늘 응원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그의 팬이었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sunkira/220168037157>)

< 어제 K팝스타에 내가 좋아하는 유재하의 우울한 편지가 나왔다! >

만 25 쯤다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故 유재하의 노래 가운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곡이기도 한 우울한 편지는 80년대 당시의 곡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만큼 시대를 초월하는 세련된 곡으로 유재하의 천재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명곡 중에 명곡이라고 생각한다. 짧은 생과 음악활동으로 단한장의 앨범만을 발표했던 故 유재하가 우리 가요계에 주는 영향력은 실로 놀라울 정도다. 여전히 그의 음악세계를 그리워하며 그를 기리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우리 가요사에

길이 남을 위인이란 생각이 든다.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lscjf89dbs/220648014554>)

3.2.3 공연이야기

공연 이야기에는 노래 이야기도 있고 가수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그날 그 공연에 있었던 사람들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있다. 공연은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던 가수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고 관객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미디어를 통해서만 보여지던 모습 외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또 다른 평가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 '시청광장에서 다시 한 번' / PSY-강남스타일 (2012) >

2012년 10월 4일, 한 가수가 이곳에서 무료콘서트를 열기로 했다.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직 그의 노래를 듣기위해 시청 앞 서울광장으로 모여들었다. 무료 콘서트의 주인공은 싸이었다. 10만명의 하나의 목소리로 강남스타일을 외치기 시작했다. 세계가 열광한 우리의 노래 강남스타일을 다함께 외치는 10만 관객들은 이날 가슴이 벅찼고 뿌듯했으며 하나가 됐다. 평범한 회사원 김명섭씨는 3년 전 이곳에서 잊지 못할 감격의 순간을 맞았다. "10만 명의 관중이 '강남스타일'을 불렀다고 상상해보세요. 가슴이 뛰어서 주체를 못할 정도였죠. 2002년 이후에 시청 앞 광장이 정말 하나가 되었던 광경이었어요." (KBS 1TV '다큐1-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 '동부전선에서 공연을 하다' 〉

1955년 KBS 전속가수로 발탁되어 활동하던 가수 안다성씨는 현재 원로가수 모임 거목회 회원이면서 한국잡전예술인협회 회원이다. 그는 1951년 쌀 두가마니를 대가로 받고 군예대에 지원하였다. 그리고 전장을 누비며 2년 9개월 동안 무려 1백여 차례의 공연을 치렀다. 군용트럭으로 1백여 리 길을 두 시간, 혹은 그 이상씩 달려 이동하는 중에 총탄이나 포격 세례를 받기도 수차례, 예고 없는 무차별 폭격은 공연장에도 예외일 수 없어 공연은 수시로 중단되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공연이었다. 지금 그는 그때의 공연을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동부전선 어디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엔 라이트가 없으니까 트럭 두 대로 헤드라이트를 비춰 겨우 가설 무대를 만들어 놓고 공연을 시작하는데 포탄이 수시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슬아슬한 심정으로 무대에 서자니 조마조마하죠. 관객들은 미처 피난 못 간 사람들과 군인들이 함께 섞여 있었는데 포탄이 떨어져도 부대장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까지 공연을 해야 했어요. 공연하는 시간만큼은 모두들 즐거워했어요. 서로 격려의 박수라고 할까, 분위기가 대단했죠. 전쟁하다 말고 온 군인들은 잠시 후면 다시 전투를 위해 고지에 올라야 하는데 쉽게 흥이 나겠어요? 그러나 그럴수록 모두 일심동체가 되어 흥을 북돋우고 박수 쳐주고, 노래와 격려로 한마음이 되는, 알고 보면 눈물 나는 공연이었던 셈이죠.” (박성서 2010, 178-184)

〈 씨시봉 공연, '순수 시대의 초대장' 〉

'2015 씨시봉 전국투어 콘서트'가 지난 3월 14일 '성남 아트센터'를 시작으로 열리게 된다고 했으

니 이 투어의 첫번째 공연을 보게 된 것이다. 출연 가수는 김 세환, 윤 형주, 조 영남이었고 이 상백씨가 재담을 보태며 즐겁게 공연을 이끌었다. 모두들 너무 낮익고 친근해서 오랜 세월 알고 지낸 지인을 만난 것 같았고, 더 놀라운 것은 아직도 그들은 '젊은 그들'이라 해야겠다는 것이다.

과연 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연배로서 동시대를 살아 온 사람들이란 말인가? 차칭, 타칭 막내라고 부르는 김세환은 48년 생이고, 윤형주 47년생, 조 영남이 45년 생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말이다. 청춘은 인생의 어느 시기가 아니라 열정이라는 시인의 말이 저절로 떠 오르는 순간이었다. 유관순 언니가 우리에게 영원한 언니이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영원한 청춘의 모습으로 남아 있으려나! 여전히 청바지가 잘 맞으니 그렇고, 기타 튕기는 손 동작들이 현란하고 멋진 것이 그렇고, 농담같은 대화가 흥취를 없이 넘나드는 양이 소년들 같으니..... 그들의 시계는 1970년 당시에도 고정되어 버렸다고 말하고 싶다.

검게 그을린 김 세환씨의 미소에서 미소년의 모습을 보았고, 반듯한 윤 형주 씨는 유머 감각을 뽐 냈으며, 조 영남 씨의 익살은 그의 노래만큼 청중을 사로잡으며 분위기를 띄우니, 진정 클래식이 된 노래들과 더불어 우리 시대의 전설적 인물이 되어 영원히 인구에 회자할 것이다. 조 영남씨가 처음으로 씨시봉에서 불렀던 노래는 직접 피아노까지 쳐가며 불러 역사적 사실을 재현했고, 윤 형주 씨가 만들어 유통 시켰던 무수한 CM 송들을 엮으니 한국 CM송의 진화를 한 눈에 보는 것인 바,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그들의 영향 아래 있었다는 걸 느꼈다. 일련의 음악 변천 사이기도 할 것이다. '할아버지의 시계', '항수'.....

음악은 그 아름다운 습기로 마음의 저 마른 구석을 적시고 있다. 그것은 바로, 잊힐리 없는 우리 젊고 순수했던 날들에의 초대장이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uhaenghwa.tistory.com/496>)

### 3.3 '이야기'컬렉션의 가능성

앞서 살펴본 각 매체별 이야기의 특성을 살펴보면 매체의 특성에 따라 이야기도 각각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라디오는 디제이가 사연을 소개해주고 디제이가 그에 대한 대답을 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자들이 글을 작성할 때 사연을 들려주는 대상은 디제이이다. 디제이에게 말을 하는 형식으로 글이 작성된다. 이러한 글은 대화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방송에서 채택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화체보다 형식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 사연이 작성되기 때문에 이용 연령층이 젊고 이에 따라 오래전 이야기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TV는 이미 계획단계에서 제작진이 방송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작진에 의해 선별된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가 진행되기 때문에 제작진이 의도한대로 인터뷰가 진행되어 이야기를 해석하는 관점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터뷰는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그에 대한 증언으로 이루어지는데 다양한 연령층의 인터뷰이를 섭외하여 다양한 시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므로 다른 매체에 비해 비교적 오래전이야기까지 담을 수 있다.

블로그(blog)는 타인과의 소통을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 개인이 자신의 이야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들려주고 공감을 얻는 형식이다. 공감은 댓글로 표되는데 댓글을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소통하고 공감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자유롭게 글을 적어 내려가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사용되는 줄임말이나 이모티콘 등의 문자가 쓰여 진다.

이렇듯 대중가요를 매개로 한 이야기가 각각의 매체를 통해 다양한 모습으로 발현되고 있다. 또한 그 수가 적지 않다. 본 논문에서 수집된 이야기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수집되어야 할 이야기가 수없이 많으며 더 많은 이야기가 만들어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수집된 이야기들을 당시에 그 곡이 어떤 의미를 가졌으며 왜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이야기들은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삶의 고달픔, 슬픔, 기쁨을 담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자료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노래이야기, 가수이야기, 공연이야기 등으로 나누었지만 그 안의 이야기들은 다시 또 다양한 주제로 나뉜다. 그러한 이야기는 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 노래가 유행하던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대중가요사를 넘어 우리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소개된 사례만으로는 이러한 가능성을 모두 설명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옛날이야기의 부재이다. 라디오 홈페이지에 사연을 올리고 개인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는 주 이용층은 10대~40대이다. TV 프로그램에서 오래전 이야기를 다루었지만 그 양은 극히 적다. 이것은 옛날이야기

의 수집에 대한 한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참여형 아카이브를 예로 들 수 있다. 대중가요 아카이브 내에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누구나 나의 이야기를 또는 나의 할머니 이야기, 나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수집된 몇 가지 이야기로 시대의 한 모습을 보기에는 그 수가 너무 적다. 수집된 이야기들이 각자 다른 주제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음에 어느 단면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수집된 이야기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다는 사실을 고려했을 때 수집된 이야기들을 통해 대중가요가 우리의 삶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중가요를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즐거움, 삶의 고달픔, 슬픔, 기쁨 등의 감정을 공감할 수 있고 또한 대중가요를 통해 떠올리는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미 실재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수집하였지만 더 나아가 대중가요 아카이브 자체에서 이야기를 수집하려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 물론 매체를 통해 나타난 이야기들의 수집은 매우 중요하다. 그 수가 상당하고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발현된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 외에도 대중가요 아카이브 자체에서 이야기장을 만들어 이야기를 수집하려는 움직임 또한 필요하다. 남녀노소 아무나 이야기에 참여할 수 있고 자신의 추억을 나눌

수 있는 이야기장이 아카이브 내에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장이 마련된다면 누구나 글을 쉽게 쓰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다수의 작성자 또는 아카이브 이용자가 이야기에 공감하고 또는 서로의 기억에 개입하면서 수집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평가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가 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졌을 때에 비슷한 주제끼리 분류하여 살펴보면 이야기들이 서로의 이야기에 개입되고 부정의 의견이 수렴되고 공감되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좀 더 정교해진다. 따라서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여 가는 '스토리텔링'의 과정에 따라 보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어느 목적을 위해 모인 단체가 아닌 일반인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형성되기 때문에 특정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컬렉션이 성장을 이룬다면 우리 사회를 더 입체적이고 바르게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해 볼 만 하다.

요즘 IT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사는 가상현실(VR)이다. 가상현실(VR)이란 멀티미디어 기술을 응용하여 현실에서 존재하지 않는 환경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들은 단편적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였고 더 많은 것을 더 입체적으로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치 체험을 하지 않아도 체험한 듯한 느낌을 느끼기를 원한다.

우리 사회의 모습 또한 그렇게 보여지고 남겨져야 할 필요가 있다. 내게 보여지는 단편적인 사회의 모습이 아닌,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

본 사회의 모습,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사회의 모습을 봄으로써 이 사회를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야기'컬렉션이 우리가 사회를 볼 때 이 VR기기의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4. 맺음말

대중가요는 지난 100년간 당대의 시대상을 반영하며 사회의 흐름을 함께 하였다. 그리고 대중은 대중가요를 들으며 공감을 한다. 이에 따라 대중가요 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러한 노력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중가요 아카이브는 어떤 가수가 있었고 어떤 노래가 있었으며 어떤 가수가 어떤 노래를 불렀는지에 대한 정보에만 관심을 가져왔다. 이러한 정보만으로는 그 시대에 그 노래가 어떤 의미였는지 왜 그런 의미를 가졌는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없다. 대중가요는 대중성과 상업성을 중심으로 만들어 지는 노래로 대중가요에 있어서 대중이 대중가요를 소비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소비를 만들어낸 사회의 모습 또한 뱉 수 없는 부분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대중가요에 대한 정보와 함께 그 시대의 사회상까지 아카이빙 되어야 할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방법으로 '이야기'컬렉션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는 앞에서 제시한 '이야기'컬렉션을 직접 수집해 봄으로써 어떤 '이야기'가 다양한 매체 속에 실재하고 있는지와 그에 따른 '이야기'컬렉션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수집 대상으로는 라디오 사연, TV 프로그램 속 사연, 블로

그 속 사연을 대상으로 하여 그 속의 대중가요에 얽힌 이야기들을 수집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집된 이야기들은 연구자 임의로 선별한 이야기로 정확한 평가·선별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이야기 수집은 지극히 일부분이며 매체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야기가 나타나고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과정으로 구체적이고 획일적인 평가·선별 기준을 거치지 않았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소개한 이야기가게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수집된 이야기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그 주제와 내용에 따라 이야기를 선별하여 활용하고 있다. 추후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이야기'컬렉션을 운영한다면 이야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의 일정한 평가·선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미 현재하는 이야기 수가 상당하여 그 이야기를 모두 수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으며 모든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 또한 무의미한 일이다.

다음으로 저작권의 문제가 있다. 각종 매체에서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수집할 시 작성자가 다양하고 그 출처가 다양하기 때문에 수집 동의를 얻는 과정이 복잡하고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현재 서태지 아카이브는 팬들의 기증으로 대부분의 기록물을 디지털화 하였지만 저작권문제로 인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데이터가 상당수이며 꾸준히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야기'컬렉션 또한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야기를 수집했을 경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 또한 대중가요 아카이브에서 '이야기'컬렉션을 운영한다면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수집된 이야기들은 대중의 삶을 반영하고 그

노래가 유행하던 시기의 사회상을 반영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해 대중가요사를 넘어 당대의 사회의 모습을 더욱 입체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그 속의 우리의 생활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써 활용될 것을 기대해볼 만하다.

## 참 고 문 헌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29, 3-33.
- 김용학 (2015). 한국 대중가요의 의미 연결망: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21(1), 145-171.
- 김정아 (2013). 미디어 음악.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종덕, 조나현 (2008). 개인 블로그를 통한 자기기술(自己技術)의 변화.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8(8), 128-146.
- 김지미 (2014). 1980년대를 '기억'하는 스토리텔링의 전략: <씨니>와 <변호인>을 중심으로. 대중서사학회. 대중서사연구, 20(3), 7-39.
- 김철웅 (2015). 노래는 위로다. 서울: 시사IN북.
- 박범중 (2015). 대중가요로 읽어내는 정치와 시대상. 동북아 문화연구, 45, 169-186.
- 박성서 (2010). 한국전쟁과 대중가요, 기록과 증언. 서울: 책이 있는 풍경.
- 박수연 (2013). 한국 주크박스 뮤지컬에서 사용된 대중음악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중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 박재환, 일상성·일상생활연구회 (2008). 일상생활의 사회학적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32, 3-44.
- 신동훈 (2009). 현대의 여가생활과 이야기의 자리: 생활현장 속 이야기문화의 회복을 위하여. 실천민속학회. 실천민속학연구, 13, 5-34.
- 심성보 (2011). 일상 아카이브즈를 통한 생활세계 연구의 가능성.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국제한국학연구, 5, 93-109.
- 안병직 (2012). 한국 생활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역사학회. 역사학보, 213, 409-423.
- 앙리 르페브르 (2005). 현대세계의 일상성. (박정자 역). 서울: 기파랑. (원전 발행년 1990).
- 우정권 (2009). 문명의 변화와 내러티브. 서울: 월인.
- 이순화 (2011). 1960년대 한국 음악영화에 나타난 신파성.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연극영화

학과 영화전공.

- 이형수 (2012). 대중음악가 아카이빙 방안 -김광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 장유정, 서병기 (2015). 한국 대중음악사 개론. 파주: 성안당.
- 전호순 (2012). 대중가수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조용필의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 정효진 (2016). 주크박스 뮤지컬에서 사용되는 김광석의 음악에 관한 연구: 뮤지컬 그날들과 바람이 불어 오는곳에 관한 연구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대중공연예술학과 대중음악제작·경영전공.
- 조정임 (2010). 대중음악 기록관의 구축과 기록관리. 석사학위논문. 한신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전공.
- 주혜성 (2013). K-POP 아카이브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물관리학전공.
- 최효진, 임진희 (2015). 개인 일기의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와 전망 - “5월12일 일기컬렉션”을 중심으로. 한국기록학회, 기록학연구, 46, 95-152.
- 키스 켄킨슨 (1999).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최용찬 역). 서울: 혜안. (원전 발행년 1991).
- 한국콘텐츠진흥원 (2015). 음악산업백서 2014. 한국콘텐츠진흥원.

#### [사이트]

- 조윤식 (2015). “[책 속을 걷다] 책장을 넘어 산을 오르자!”. moutain. 검색일자: 2016. 3. 17.  
<http://www.emount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02>
- 보도자료 (2015). “다큐1 광복70년 시대의 사운드트랙 2부작(1TV, 9월24일~25일)”, MyloveKBS, 검색일자: 2016. 4. 28. <http://office.kbs.co.kr/mylovekbs/archives/178680>

####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Ahn, Byung-Jik (2012). Some Reflections on Kiho Song's Study on Daily Life in Korean History. *The Korean Historical Review*, 213, 409-423.
- Bak, Su-Yeon (2013). A Study on Popular Music Used in Korean's Jukebox Musical - A Focus on Variation and Function -.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rts and Design, Department of Musical, Theatre, Production, Direct, Act.
- Cho, Jung-Im (2010). Establishment and Records Management of Popular Music Archiv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sin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 Choi, Hyo Jin & Yim, Jin Hee (2015). Value and Prosect of individual diary as research materials:

- Based on the "The 12th May Diaries Collection".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95-152.
- Jeon, Ho-Soon (2012). A Study on the Establishing of Popular Singer Digital Archives - Case Study of Cho, Yong-Pil -.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Hannam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es Management.
- Ju, Hye-Seong (2013). Study on the Activation Plan of K-POP Archive.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cience, Major i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 Jung, Hyo-Jin (2016). A Study on the Kim Gwang-seok's songs Applied in Jukebox Musical: Focused on the Study on Musicals: "That Day" and "Where Wind Comes from".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Culture, Art & Design. Department of Performing Arts.
- Kim, Ji-mi (2014). The Story-telling Strategies of 'Remembering' the '80s - Sunny and The Attorney.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0(3), 7-39.
- Kim, Jong-Deok & Cho, Na-Hyun (2008). Changes of Technologies of the Self by Personal Blog. The Korea Contents Society, 8(8), 128-146.
- Kim, Yong-Hak (2015). Semantic Network of Korean Pop Songs - Changing meaning Structure from 1960's to 2000's. Journal of Popular Narrative, 21(1), 145-171.
- Kwak, Kun-Hong (2011). A Study on a Paradigm Shift to Archives of everyday lif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29, 3-33.
- Lee, Soon-Hwa (2011). Sinpa of Korean music films in the 1960s.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Dept. of Theater & Film.
- Park, Beom-Jong (2015). Politics and The phases of the times reading with Popular Songs. Journal of North-east Asian cultures, 45, 169-186.
- Rhee, Hyung-Soo (2012). The Methods of Archiving for Pop Musicians' Records - Centering around the Relics and Records of Kim Kwang Seok -.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Wonkwang University. Department of Archival Science.
-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2, 3-44.
- Shin, Dong-Hun (2009). Leisure in Modern Life and Storytelling Assemblies - For Revival of Storytelling Culture in Everyday Life. The Study of Practice Folkloristics, 13, 5-34.
- Sim, Sung-bo (2011). Possibility of the Studies on the Everyday World by Using an Archives of Ordinary Life.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Korean Studies, 5, 93-109.

